

## 02 가시리

### 1 고려 가요의 뜻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대표적 시가이다.

‘고려속요(高麗俗謠)’, ‘장가(長歌)’, ‘여요(麗謠)’라고도 부른다.

### 2 고려 가요의 특징

- (1)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 (2) 오랜 기간 전승되는 동안 침식 과정을 거쳐 세련미를 갖추게 되었다.
- (3)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 (4) 민요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운율이 무척 아름답고 표현이 소박하면서도 진솔하다.

### 3 고려 가요의 형식

- (1) 여러 개의 연 또는 절로 나뉘는 분연체(분절체)이다.
- (2) 한 구절은 대체로 3·3·2조의 음보율을 보인다.(3음보)
- (3) 운율을 맞추거나 음악적 효과를 위해 실질적 의미가 없는 후렴구(여음구) 혹은 조흥구가 붙는다.

### 4 고려 가요의 내용

- (1)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슬픔, 삶의 애환, 부모에 대한 효 등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노래하였다.
- (2)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은 조선조 학자들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는 문헌에 신지 못한다.’고 하여 기록할 때 삭제되기도 하였다.

### <갈래학습>

갈래 고려 가요

운율 외형률(3·3·2조의 3음보)

성격 서정적, 애상적, 민요적

구성 ‘기 — 승 — 전 — 결’의 4단 구성(분연체)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별칭 귀호곡(歸乎曲)

출전 「악장가사(전문)」, 「시용향악보(1절만 전해짐)」

특징 .후렴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임을 떠나 보낸 여인의 슬픈 모습이 애절한 느낌을 준다.

.떠난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였다.

지은이 모름

윤희이 박병채(朴炳采, 1925~1993) 국어학 문학 박사. 전 고려 대학교 교수. 저서로 <우리 고전>, <고대 국어 연구>, <고려가요 어석 연구> 등이 있다.

노래의 짜임

.기(1연) : 이별을 믿을 수 없어 안타까움

.승(2연) : 떠나는 임을 원망함.

.전(3연) :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결(4연) : 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램.

<본문>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단어>

\*나는 : 악보율에 맞추기 위한 무의미한 조흥구.

\*위 : 감탄사.

\*증즐가 : 조율음.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소리임.

\*대평성대(太平盛代) : 노래의 의미와는 관계 없이 악율에 맞추기 위한 첩입구.

\*날러는 : 나더러는.

\*잡사와 : 붙잡아.

\*두어리마나는 : 두고 싶지만.

\*선하면 : 서운하면.

### 03 시조 두편

#### 1 시조의 뜻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말기에 완성된 형태가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정형시이다.

#### 2 시조의 특징

- (1) 3장 6구 45자 내외가 기본형이다.
- (2) 내용은 탄로(歎老), 유교적 충의,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 임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하다.
- (3) 음수율은 3·4조 또는 4·4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한두 음절의 많고 적음은 무방하다.
- (4) 4음보의 율격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중장의 첫 음보(3음절)이다.

#### 3 시조의 종류

- (1) 평시조(단형 시조) :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 시조
- (2) 엇시조(중형 시조) : 평시조의 초장이나 중장 중 어느 한 구가 길어진 시조
- (3) 사설시조(장형 시조) : 초장, 중장, 종장 중 두 구 이상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시조
- (4) 연시조 : 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평시조가 묶여 있는 시조

#### <갈래학습>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갈래 평시조

운율 외형률(3·4조, 4음보)

성격 자연 친화적, 낭만적

구성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구성

제재 산촌에서의 삶

주제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출전 「청구영언」

특징 .감각적인 풍경 묘사가 나타난다.

.세상과 단절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선비의 고결한 인생관이 드러난다.

지은이신흙(申欽, 1566~1628) 조선 선조 때부터 인조 때의 학자. 저서·편저로 <상촌집(象村集)>, <야언(野言)>, <낙민루기(樂民樓記)> 등이 있다.

웁긴이 원용문(元容文)

#### 시조의 짜임

.초장 : 산촌에 눈이 내려 길이 끊어짐.

.중장 : 찾아올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

.종장 : 자연을 벗삼아 지냄.

논밭 갈아 김매고~

갈래 사설시조

운율 외형률(4음보의 변형)

성격 서민적, 풍류적, 현실적

구성 '초장 — 중장 — 종장'의 3장 구성

제재 농부의 하루

주제 농부들의 고된 삶과 여유

출전 「청구영언」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농부의 평범한 일상을 생동감 있는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지은이 모름

윤희이 원용문(元容文, 1938~ ) 시조 시인. 시집으로 <칠인 사화집(七人詞畵集)>, 시조집으로 <여름일기>가 있다.

시조의 짜임

.초장 : 김을 매고 나무하러 갈 준비를 함.

.중장 : 나무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여유를 즐김.

.종장 :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옴.

<본문>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늬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하노라.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넘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벼려 둘러메고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  
른 \*쇳을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앞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올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단어>

\*시비(柴扉) : 사립문.

\*늬 : 누가.

\*긔 : 그것이.

\*베잠방이 : 가랑이가 무릎까지 오는 짧은 남자용 홰바지.

\*대넘쳐 : 대넘 매고.

\*신들매고 : 신이 벗겨지지 않게 밭에다 동여매고.

\*벼려 : 날카롭게 만들어.

\*무림산중(茂林山中) :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깊은 산 속.

\*삭정이 : 산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죽은 가지.

\*쇳 : 떨나무.

\*조올다가 : 졸다가.